

## TV 오락프로그램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해학미

김민신\* · 채금석\*

숙명여자대학교 향장미용학전공 겸임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The Humorous Beauty of Makeup Shown in TV Entertainment Programs

Min-Shin Kim\* · Keum-Seok Chae\*

Adjunct Prof., Dept. of Cosmetic & Beaut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14. 3. 9. 접수; 2014. 5. 12. 수정; 2014. 5. 15. 채택)

#### Abstract

The following are summary and result of this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into TV makeup types focusing on Korean aesthetics with recognizing importance of Korean thought amid what the global interest pays attention to South Korea thanks to the recent influence of Hanryu(Korean wave). The humorous beauty reflects Korean people's optimistic attitude dubbed the realization of joy, anger, sorrow, and pleasure through opposition and convergence in ambivalent emotion with the superb attitude available for escaping from a stoic life. This is being indicated in the shocking form of embracing the avant-garde experiment through transforming and distorting by positively accepting humor and ugliness, which are the form of distortion and exaggeration, which strive for departing from sorrow through TV entertainment programs. This trend is being shown similarly to the tendency of giving mental satisfaction to human being with amusement while accepting ugliness as new beauty with the de-centralized recognition in the late 20th century. Accordingly, as the makeup of focusing on presenting character begins to be noted even in makeup, the similarity was being shown to the recent trend.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continuous development in our country's makeup and TV broadcasting art field by being expanded the atmosphere of more systematic and in-depth research.

*Key Words:* Korean aesthetics(한국적 미의식), TV makeup(TV 메이크업), The humorous beauty(해학미)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는 매스 미디어의 시대이다. 2010년 언론 수용자 의식조사 리서치 보고서에 의하면 수용

자들이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미디어로 TV가 65.6%를 차지할 만큼 여전히 TV의 영향력은 다른 매체보다 가장 앞서 있다(Media Survey, 2010). 특히 TV는 현대인의 의식구조와 행동양식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 미디어와 현대인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밀착되어

---

Corresponding author ; Min-Shin Kim

Fax. +82-2-710-9872

E-mail : minshintop@lycos.co.kr

※ 위 논문은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중문화의 큰 틀을 형성하여 대중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처럼 현대는 매스 미디어의 활용도가 매우 광범위(최수경, 2011)하며,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영향을 주는 매체 중 가장 강력한 매체가 TV인 만큼 TV메이크업은 단순히 얼굴만 아름답게 꾸미는 차원이 아니라 방송미술 분야의 한 요소로써 방송인의 가치관, 기호, 상황 등을 표현하는 도구로 문화의 중심에서 서서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최근 한국적 스타일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에 한국적 미의식에 근거한 우리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 연구들이 각 분야에서 인식되기 시작하여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메이크업 분야에서도 기존의 절대적인 가치로만 여겨지던 서양적 미적 가치관의 범주를 넘어 다른 관점의 접근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미의식 중에서 해학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인고의 역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웃음으로 이겨내고자 하는 낙천적인 성향에서 우리나라의 것으로 이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게 되었다. 결국 해학이 가지는 기본 성질, 즉 드러냄으로써 정신적인 건강과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다는 뜻에서 해학은 한국의 정신사상을 이어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세기 후반 탈 중심화가 나타나는 현대사회는 경계를 허물고 이질적, 모순적인 것을 유희적으로 사용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징으로 장난과 유머라는 유희적 기능을 중시하고 있다(김옥동, 1996). 즉 유희(遊戱)-유머(humor)는 현대인의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최고의 수단으로 과거에는 저급한 문화로 간주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마음의 평안과 정신적인 만족감을 주는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그 기능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메이크업 분야에도 반영되어 해학적인 메이크업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우리의 대중문화 중에서 TV 드라마와 가요는 1990년대 중국 및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이유경, 2013). 이러한 추세에 따라 세계는 한국의 K-뷰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이에 TV 메이크업이 한국의 메이크업을 대표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의 미를 대표하는 자연미, 불미 등 다양한 미의식 중에서 최근의 트렌드와 맥을 같이하는 해학미를 중심으로 드라마, 코미디·개그, 쇼·연예 등 TV 오락프로그램에 나타난 메이크업을 재정립하고,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류의 열풍과 함께 한국적 미의식 중 해학미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메이크업의 시대적 변화와 트렌드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TV 오락프로그램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해학미를 밝힘으로써 한국 메이크업의 해학적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범위는 2000년부터 2012년으로 오락 프로그램에 한정하였다. 이 시기는 한류라는 이름으로 일본과 대만, 중국에 한국의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수출되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방송에서 오락성의 범주에 드는 것은 드라마, 코미디, 예능 프로그램으로 오락프로그램의 장르에는 드라마, 코미디·개그, 쇼·예능 프로그램이 포함된다(김현숙, 1988). 드라마는 공중파 방송의 중영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코미디·개그 프로그램은 공중파와 CATV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쇼·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공중파 방송의 다시보기에 한계가 있어서 인터넷 등의

<표 1> 프로그램 분류

장르	프로그램
드라마	찬란한 유산(2009), 가시나무새(2011), 달자의 봄(2012), 그들의 세상(2008), 상두야 학교가자(2003), 최고의 사랑(2011), 겨울연가(2002), 꽃보다 남자(2009),
코미디, 개그	개그 콘서트(2011, 2012), 코미디 빅리그(2012), 코미디하우스(2007)
쇼	해피투게더(2012), 1박2일(2012), 무릎팍 도사(2009), 러닝맨(2012)

뉴미디어에 나타난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활용된 그림 자료로 mbc, kbs, sbs, CATV와 미디어 보도자료 등의 인터넷 자료를 선정하였으며, 흥미유발과 재미를 추구하는 오락의 기능을 제공하는 장르로 드라마 9건, 코미디.개그 3건, 쇼.예능프로그램 4건을 연구대상<표 1>으로 하였다. 또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고찰 중심의 이론적 연구로서 전통사상의 미학적 관점에서의 한국적 미의식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위해 예술 및 철학, 미학 관련 문헌, 동양학, 의류학, 향장학 등의 서적 및 미디어에 나타난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메이크업의 해학미를 살펴보았다.

## II. 이론적 배경

### 1. 한국적 미의식

국내 학자들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미의식을 살펴보면, 권영필(1985)의 연구에서 한국미의 특질을 중국에서 받은 정제·세련미(상층문화)와 실크로드를 통해서 들어온 소박미(기층문화)가 상호 부침·합일하는 현상으로 파악되어 해학미와 소박미의 두 가지 개념으로 보았다. 안휘준(1984)의 연구에서 한국인은 친진하고 풍류·해학적이어서 공간적 여유를 추구한다고 하였다. 최준식(2002)은 익살(해학)미, 과격(일탈)미를 자유분방한 미의식의 개념으로 보았으며, 격식이나 틀을 거부하고 인위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과 곡선과 여백의미를 큰 범주의 자연주의의 개념으로 보았다.

따라서 한국적 미의식은 소박·단순으로 표현되는 자연미, 익살·낙천으로 표현되는 해학미, 초월미, 조화미 등으로 대표되며 본 연구에서는 해학미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주변국 침입에 대한 항쟁의 경험을 겪으며 주어진 상황에 초연할 수 있는 자세와 함께 융통성을 가진 해학적 이환(諧謔的 移換)의 자유를 만끽하였기 때문이다. 즉 해학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삶의 인고의 역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웃음으로 이겨내고자 하는

낙천적인 성향에서 우리나라의 것이라 할 수 있다. 고유섭(1977)은 이러한 한국의 천성은 한국 미술에 나타난 해학에 대해 적조와 유머가 합쳐져서 구수한 큰 맛으로 승화되어 우리나라 미술의 한 특색을 이루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해학이 가지는 기본 성질, 즉 드러냄으로써 정신적인 건강과 균형을 되찾아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다는 뜻에서 해학은 한국의 정신사상을 반영한다. 이러한 한국적 미의식에서 익살, 과격, 이질, 유희, 과장, 즉흥 등은 해학미로 집약되며 이는 인간의 다양한 감성으로부터 즐거움과 여유, 해학과 신비감을 추구하기 때문에 김옥동(1996)의 현대사회가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징으로 장난과 유머라는 유희적 기능을 중시하고 있는 것과 일치된 견해를 갖는다.

이상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미술·음악 등 예술 분야에 나타난 해학미를 보면, 김득신의 파적도(波寂圖)(그림 1)는 한 서생이 마당에다 키우고 있는 병아리 한 마리를 물고 달아나는 고양이를 잡기 위해 장죽을 휘두르다가 마루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선비의 몸보신을 위해 키우고 있는 병아리가 고양이에게 물려가자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마루에서 떨어지는 한 선비의 우스꽝스러운 행위가 해학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림 2>의 하회탈은 모양에 따라 이름은 다르지만 좌우 비대칭의 모습으로 웃음을 띠면서 익살과 해학의 다양한 표정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하회탈 놀이는 그 늘진 삶을 살았던 백성들의 탈출구 역할을 하면서 신분에 상관없이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었다. 또한, 남원군 운봉면 서천리의 진서대장군의 허세(그림 3)를 보면 비뚤스럽게 걸친 병거지에 한잔 얼큰한 듯 그 표정이 허세를 부리지만 순박한 인간미가 해학적이다. <그림 4>는 강화 전등사 대웅전의 추녀 밑의 웃는 보살로, 추녀 밑에 앉아 무거운 지붕을 떠받고 있는 인물상이 전등사 추녀 밑에 앉았다. 무거운 지붕, 고통을 넘어서는 웃음이 익살과 해학의 모습으로 그 얼굴에 가득하다. 음악 중에서는 3대 판소리 중 하나인 ‘춘향전’에서 이도령이 암행어사가 되어 출동한 후에 벌어지는 역전극이 증증모리와 휘모리로 진행될 때, 웃음과 갈채가 터져 나오고 “얼씨구나, 절씨구나, 지화자 좋을씨고”로 끝난

다. 이처럼 판소리의 언어유희에서 오는 웃음도 큰 몫을 한다.

이와 같이 한국 전통예술에 내재된 미의식은 결국 해학이 가지는 기본 성질, 즉 드러냄으로써 정신적인 건강과 균형을 되찾는 도덕적 특성과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다는 뜻에서 해학은 한국의 정신사상의 맥을 이어왔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한국예술에 나타난 한국적 미의식 중 해학미를 중심으로 <표 2>에서 정리하였다.



<그림 1> 파적도  
(출처: <http://www.daum.net/>)



<그림 2> 하회탈  
(출처: <http://www.daum.net/>)



<그림 3> 진서장군  
(출처: <http://www.daum.net/>)



<그림 4> 추녀밀 보살  
(출처: <http://www.daum.net/>)

## 2. 메이크업과 트렌드

20세기 후반 탈 중심화는 경계를 허물고 이질적, 모순적인 것을 유희적으로 사용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부터 장난과 유머라는 유희적 기능을 중시한다(김옥동, 1996). 또한, 기존의 미 규범에서 벗어난 다양한 미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여 비방미, 희극미가 미의 영역에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에는 현대의 대중문화의 영향이 크게 기여하였다. 박성봉(1995)은 대중예술은 대중의 취향에 어울리는 예술과 오락의 욕구에서 생겨난 것으로 대중매체의 오락적, 현실도피적 특징은 유희의 본질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오락, 긴장해소, 유머는 현대인의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최고의 수단으로(Huizinga, 1990), 과거에는 저급한 문화로 간주되었으나 최근에는 이를 통해 마음의 안정과 정신적인 만족감, 치유의 개념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오락, 유희의 개념이 확산되는 추세에 이르렀다.

또한, 김현숙(1988)의 연구에서 최근에는 대중매체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오락성의 범주에 드는 드라마, 코미디, 개그, 쇼, 예능 프로그램이 풍자와 해학을 통해서 현대인의 갈증을 해소하는 위력이 있다고 보았다.

### 1) 성격표현 중심- 유희

TV 오락프로그램에서 유희적 특성은 “우스운, 우스꽝스러운, 즐거운, 엉뚱한, 놀라운, 의외적”의 감각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기성세대의 시각

<표 2> 한국예술에 나타난 한국적 미의식의 특성

분류	표현 분야	특성	한국적 미의식
미술	담배피우는 호랑이	풍자미, 익살미, 해학미, 천진난만	⇨ 해학미
	단오풍정	익살미, 해학미	
	파적도	익살미, 해학미	
음악	사설난봉가	즉흥미, 해학미	
	시집살이요, 방귀요	해학미	
무용	하회탈놀이	파격미, 해학미, 비대칭미, 관객참여	
	판소리	익살미, 낙천미, 해학미	

으로 보았을 때 예기치 않은 것에 의해 놀람과 충격을 주고 당혹감으로 웃게 만들거나 미소를 짓게 한다.베르그송(H. bergson, 1992)은 유희성을 일상규칙의 위반, 이질적 요소의 도입, 무지, 외설, 하락, 강조, 왜곡, 모순, 부조화를 통해 보는 이에게 놀라움, 쾌감, 우월감을 느끼게 하여 웃음을 자아내는 특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메이크업은 TV 오락프로그램에서 패러디 메이크업, 그로테스크 메이크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1) 패러디 메이크업

패러디(parady)의 의미에 대해 관념적으로 떠올리면 그 느낌은 ‘원작이 존재하는 대상을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최근에는 TV에서 정치 풍조를 풍자하기 위해 이 ‘패러디’ 기법이 쓰이는데,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흉내를 내는 목적이 있는 모방이다. 패러디에 대해 Burr는 이러한 모든 기성품들을 해체하여 이와 유사하게 흉내를 내거나 혹은 이를 극적인 표현으로 재구성하고,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사회적 상황에 대해 비평과 웃음을 이끌어내는 것이라 정의 내렸다고 그의 저서에서 서술하였다(나상수, 2011).

따라서 이러한 정의에 따라 패러디 메이크업은 원작을 기반으로 한 왜곡과 변형, 과장과 축소, 이질적 소재 등 무한한 상상력의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다.

### (2) 그로테스크 메이크업

장미숙과 양희영(2000)의 연구에서 그로테스크(grotesque)는 이질적인 요소의 결합, 왜곡, 극단, 과장을 통한 일련의 부조화, 불일치적 현상을 통해 웃음과 공포, 재미와 혐오를 동시에 유발하는 양면적인 모순구조로 이루어진 미의 개념으로 보았다.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 문화예술 전반에서 새롭게 표현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추(醜)를 미적 범주로 수용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성격표현에 중점을 둔 TV 메이크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패러디 메이크업의 경우, 만화나 영화의 패러디한 이미지를 연상한 캐릭터 표현을 위해 흥미롭고 개성있는 소재와 변형, 반복, 과장 기법의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자유로움을 발산하여 메이크업의 정상적인 색채의 범주를 벗어나서 부조화·부적절한 색들로 얼굴 부위별 엉뚱한 색이 더해져 의외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의 경우는 사실적 표현을 거부한 대조 기법을 통해 불균형을 유발하여 그로테스크적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신체를 왜곡시킴으로써 우습고 또 한편으로는 무섭고 역겹게 표현되고 있다. 그리하여 쾌감과 공포, 재미와 혐오, 유쾌함과 불쾌함과 같은 양면적인 감정을 동시에 체험한다.

따라서 TV 메이크업을 통해 현대인들은 웃음과 풍자, 괴기함과 공포 등의 감정을 유발하여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고, Huizinga(1990)는 이러한 감정들이 유희에서 실현된다고 보았다. 그

<표 3> 성격표현 중심의 메이크업

	패러디 메이크업	그로테스크 메이크업
컨셉	• 부조화, 비정상 등 실험적 이미지로 긴장감을 이완시켜 의외적, 심리적 해방감, 정신적 자유로움 추구 • 희극미·불쾌감 유발	
피부표현	• 피부색 변형, • 유머적 요소의 과장·왜곡	• 피부색 변형, • 괴이적 요소의 과장·왜곡
눈화장	• 이목구비의 과장과 축소 • 정상적 색채의 이탈	• 이목구비의 과장과 축소 • 어둡고 칙칙한 색채의 표현
볼화장	• 이질적 요소의 도입 • 의도적 변형 • 유머 유발	• 이질적 요소의 도입 • 의도적 변형 • 과격 유발

러므로 TV 오락프로그램을 통해 성격중심의 메이크업은 유희를 중시하는 현대인들의 긴장해소와 치유의 심리적 효과를 추구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III. 연구결과

해학미는 그동안 소외되어 온 것들에 가치를 부여하여 개성 있는 것, 특이한 것, 흥미로운 것, 기괴한 것 등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자유로움을 실현하려는 풍류적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기지(機智, wit), 풍자(諷刺, satire), 반어(反語, irony), 유머(humour)와 통하는 것(정연자, 2009)으로, 이성 중심적 사고에 따른 엄격성과 감정의 절제에서 벗어나 인간 본연의 주관적·비논리적 감정을 실현함으로써 시각적인 즐거움과 쾌감을 만끽한다. 익살은 기쁨과 한(恨)과 같이 상반되는 감정을 통해 낙천성을 중심으로 표현되고 있고, 과격은 이질적인 요소의 혼합으로 창의성과 실험성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익살은 기존의 상반된 대조와 과장 기법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희극미를 중심으로, 과격은 지나친 과장과 왜곡을 통해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그 범주를 한정하여 다루기로 한다.

그러므로 TV 오락프로그램에 나타난 메이크업은 유희를 추구하는 트렌드의 반영으로 인간의 자유로운 감정을 표현하는 한국의 미의식인 해학미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 1. 익살

익살의 사전적 의미는 풍자적인 말이나 짓으로 대상과의 대립에서 적대감을 드러내기보다 사랑과 동정으로 감싸주는 관조의 미소와 여유를 담고 있다. 이는 오랜 삶의 역경과 체념, 절망을 해학과 풍자를 통해 극복해 온 한국인이 사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비항상성의 원리를 터득하고 이를 통해 해학에 대한 감수성을 길렀던 것으로 볼 수 있다(김지연, 2004).

따라서 익살은 즐거움과 애환이 병행되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중립성을 보이며 비애로부터 일탈을 피하는 낙천적 자세로 왜곡과 과장 및 부조화를 통해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 구속과 속박을 싫어하는 한국인의 풍류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메이크업에 나타난 미완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그림 5>는 디즈니사의 캐릭터인 ‘도널드덕’을 패러디 한 것으로 눈꺼풀과 입의 형태를 과장되게 그려 표현하였고, 고무장갑을 이용해 우리의 특징인 머리 위의 벼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고무장갑이라는 과격적인 재료의 의외적 사용으로 폭소를 자아낸다. <그림 6>은 만화 ‘아기공룡 둘리’의 캐릭터 ‘마이콜’을 패러디 한 것으로 과장된 입술과 앞니를 빠지게 한 흑인 분장이 웃음을 자아낸다. 또한, kbs 개그 콘서트 ‘텐봉 스쿨’에서 박성호의 가루상 메이크업(그림 7) 역시 일본의 화장 문화를 연출한 코너로 실제 눈보다 세배 정도 확대해서 아이라이너를 과장되게 그렸으며, 언더 라인에 속눈썹을 한올 한올 그려 넣어서 눈의 크기를 더 확장, 연출한 메이크업으로 일본의 가루 화장을 패러디한 기법으로 폭소를 유발한다. <그림 8>



<그림 5> 코미디·개그  
(출처: <http://www.daum.net/>)



<그림 6> 코미디·개그  
(출처: <http://www.daum.net/>)



<그림 7> 코미디·개그  
(출처: <http://www.daum.net/>)



<그림 8> 코미디·개그  
(출처: <http://www.daum.net/>)

역시 대머리 분장에 나이가 든 박사를 패러디한 것으로 머리 둘레만 백발이고 눈썹과 콧수염은 검은 색으로 색상의 불균형·부조화를 보이며 보는 이로 하여금 웃음이 터지게 한다. 이러한 패러디 메이크업은 얼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소품을 이용해 흥미로움을 유발하는 것으로 다양성을 바탕으로 자유로움을 실현하려는 해학의 정신의 발현이라 사료된다. 또한 ‘말광량이 삐삐’ <그림 9>의 메이크업은 작품 속의 인물을 패러디한 것으로 원작의 실제 인물과 비교되어 웃음을 자아낸다. ‘삐삐’의 경우, 헤어스타일은 원작과 같지만 얼굴의 경우 짙은 눈썹과 짙은 치아, 볼의 주근깨를 과장되게 표현해 폭소를 자아내고 있으며, ‘백설공주’ <그림 10> 또한 여성스러운 모습 속에 코 옆의 과장된 큰 점이 아름다움을 감소시켜 반전을 일으키는 기지를 일으키고 있다. <그림 11>은 라텍스를 이용해 대머리를 표현한 것으로 특수 분장의 머리와 반쪽으로 흰 눈썹, 들린 코의 모습이 특이한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낸다. <그림 12>는 쇼·예능 프로그램의 sbs ‘도전 1000곡’에서 박희순은 부분적인 대머리 분장과 함께 눈을 감은 채 눈꺼풀 위에 눈동자를 그려 넣어 마치 본인의 눈인 양 분장을 해서 비정상적인 형태를 통해 놀라움과 웃음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논술을 토대로 메이크업에서 익살적 표현은, 첫째, 피부표현에 있어, 극 중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 본연의 피부색을 무시하고 불연지와 주근깨와 같은 조형적 형태로 웃음을 자아내거나 만화나 영화의 패러디한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등 여러 가지 웃음을 자아내는 요소들을 도입하여 과장과 왜곡된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아이 메이크업의 경우 우스꽝스런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즉 바보 분장부터 코믹한 분장, 만화 캐릭터에 이르기까지 성격표현을 위해 흥미롭고 개성있는 소재와 다양한 기법의 방식으로 자유로움을 발산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메이크업으로는 성격 메이크업과 특수 메이크업의 기법을 이용하여 긴장감을 이완시켜 심리적 해방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한대의 실험적 표현으로 기대한 것과 차이가 나서 웃음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여러 캐릭터를 한꺼



<그림 9> 코미디·개그  
(출처: <http://www.daum.net/>)



<그림 10> 코미디·개그  
(출처: <http://www.daum.net/>)



<그림 11> 코미디·개그  
(출처: <http://www.daum.net/>)



<그림 12> 쇼·예능  
(출처: <http://www.daum.net/>)

번에 표현함으로써 의외적인 폭소와 정신적 쾌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메이크업에 있어서 익살은 대조와 과장, 무제한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메이크업을 위한 형태와 색채를 무시하고 재미와 즐거움을 연출하여 부조화·부적절한 색들로 얼굴 부위별 엉뚱한 색이 더해져 의외성, 기발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위의 논점을 중심으로 메이크업의 익살적 표현은 정상적인 것을 벗어난 대조와 과장, 즐거움과 한(恨), 유쾌함과 불쾌감을 동시에 체험하는 부조화, 비정상적인 불균형을 추구한다. 즉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심리적인 긴장을 해소하여 의외의 폭소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는 미추(美醜)의 분별에 의한 가치판단을 거부하는 불교의 중도론과 도교의 현빈사상이 반영된 것이라 사료된다.

## 2. 파격

파격의 사전적 의미는 정해진 방식이나 예의, 관례, 일정한 격식을 벗어난 것으로 표현에 있

어 변형·왜곡을 보인다. 또한 파격은 격식에서 이탈한 자유분방함으로 실험적 창의성을 지향한다. 즉 전통적 고정관념을 버리고 무형식, 부정확, 기형의 원리를 적용하여 기존 신체 형태를 무시하고 변형과 왜곡을 통해 신선한 충격과 활력, 유희적 쾌감과 개성적 차별화 욕구를 충족하는 전위주의적 조형미를 나타낸다. 이를 엄소희와 김문숙(2000)의 연구에서는 현대 아방가르드 경향이 모던적인 전통을 거부하고 실험적이고 비논리, 비이성, 무형식의 극단적인 표현양식으로 무제한적 허용을 허락하는 열린 개념의 미로써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각각의 요소와 구성, 위치가 무차별적으로 도입되어 상식을 초월한 전위적 방식으로 절충되는데 특히 서로 다른 장르나 이질적인 요소의 혼합은 유일한 특정 사고 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하고 광범위한 요소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기술과 사고가 요구된다고 보았다(나현신, 2001). 따라서 메이크업에 나타난 미완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코미디·개그 프로그램에서 특히 영화 ‘반지의 제왕’의 캐릭터 ‘골룸’을 패러디한 mbc ‘코미디하우스’의 조혜련<그림 13>은 두상 위에 라텍스로 제작된 특수 메이크업의 가발을 쓰고 SF 공상적 외모를 연출하였다. 백발의 몇 가닥 안 되는 머리카락은 대머리 특수 기법으로 라텍스의 이질적인 소재로 얼굴의 피부와 자연스럽게 조화되어 괴이한 동물 모습을 연출하였다. 이는 극중 인물의 성격을 연출한 것으로 혐오스러운 이미지가 동물의 원초적인 표정, 공포의 감정과 함께 파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4>를 보면 회색으로 피부표현을 하고 눈 주위를 붉고 움푹 패이게 음영감을 주어 어둡고 음침한 분위기를 만들어 전체적으로 암울하고 괴기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여 병적·비인간적 이미지의 추의미를 보여준다.

kbs 드라마 ‘전설의 고향’의 ‘구미호’ 편에서 여우로 분한 메이크업<그림 15>은 호러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며 섬뜩함을 조성하고 있다. 마스크를 쓰고 그 위에 여우로 메이크업한 모습은 하얗게 칠한 피부표현과 특수 제작된 렌즈에 조명을 받아 강하게 표현된 눈매에서 혐오와 공포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한다. 이는 섬뜩한 느낌을 유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짜릿한 공포를 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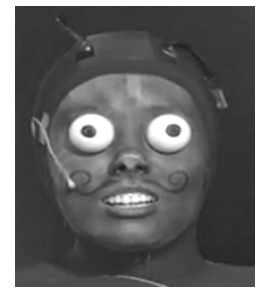
<그림 13> 코미디·개그  
(출처: <http://www.daum.net/>)



<그림 14> 코미디·개그  
(출처: <http://www.daum.net/>)



<그림 15> 드라마  
(출처: <http://www.daum.net/>)



<그림 16> 코미디·개그  
(출처: <http://www.daum.net/>)



<그림 17> 코미디·개그  
(출처: <http://www.daum.net/>)



<그림 18> 코미디·개그  
(출처: <http://www.daum.net/>)

기는 내면의 괴기미를 도출하고 있다. 성격표현 연출을 위한 특수 메이크업<그림 16, 17, 18>에서는 괴기스러움과 팔자형태 콧수염의 코믹함이 내재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눈에 콜라주 형태의 오브제와 머리의 안테나를 사용해 부분적으로 왜곡, 다양한 이미지를 변형한 사이보그적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그림 19>는 영화 ‘아바타’를 패러디한 것으로 파란색 피부표현은 얼굴의 변형적 무늬를 통해 혐오스럽고 기이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색채의 대담한 표현방식은 미래의 시간과 현실을 무시한 가상





<그림 19> 코미디·개그  
(출처: <http://www.daum.net/>)



<그림 20> 드라마  
(출처: <http://www.daum.net/>)

세계에 대한 그로테스크적 기이함을 보여준다. <그림 20>은 역사극에서 ‘무인’의 캐릭터를 연출한 메이크업으로 라텍스를 이용해 살과 살을 접어 마치 칼에 베인 듯한 상처를 보여주는데 이러한 특수분장을 통해서 혐오감과 공격성을 풍자적으로 묘사하여 삶과 죽음의 공포로 표출된 무인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논술을 토대로 메이크업에서 파격의 표현은 첫째, 피부표현에 있어 색채와 질감을 지나치게 과용하여 메탈릭(metallic) 같은 바디 페인팅을 시도하거나 오일이나 글로시 질감 혹은 매트한 질감으로 얼굴표현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조형성은 얼굴의 기본 형태를 고의로 변형시켜 우습거나 무섭고 역겹게 표현함으로써 쾌감과 공포, 재미와 혐오, 유쾌함과 불쾌

함과 같은 양면적인 감정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둘째, 아이 메이크업과 같은 부분적인 형태의 왜곡 및 변형을 표현하고 있다. 다양한 오브제의 사용과 거칠고 극단적인 질감표현, 아이세도우나 립 컬러로 널리 사용하지 않았던 강한 색채의 대비가 나타나 메이크업 디자인의 파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절대적인 미의 기준에서 벗어난 지저분하고 그로테스크한 부정적 감정을 수용함으로써 미적 표현을 다양하게 확대했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는 결국 미적 규범에서 벗어나 인간의 무한한 자유 의지를 실현하도록 하는 열린 사고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앞의 해학미에서 보여주는 메이크업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점을 논할 수 있다. 해학미에 나타난 메이크업은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 형태·색상·표현방식에서 무제한적 시도를 통해 인간의 내재된 다양한 감정을 발산시키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트렌드에서 보여지는 유희와 맥을 같이 하여 기존의 미(美) 규범에서 벗어나 추(醜)와 같은 다양한 미의 개념의 도입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최근의 추세인 유희 기능의 확대로 해학미는 현대인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해방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인간 내면의 고통과 사회적 모순을 표

<표 4> 메이크업에 나타난 해학미의 특성

표현형식	익살	파격
기법	1. 피부표현 • 피부색 탈피 • 자유로운 형식 ⇨ 반전의 묘미 2. 아이메이크업 • 형태 무시 ⇨ 반전의 묘미	1. 피부표현 • 피부색 탈피 • 극단적인 질감 ⇨ 괴기감 극대화 2. 아이메이크업 • 형태 무시 ⇨ 괴기감 극대화
내적의미	• 소외되어 온 것들에 가치부여, 자유로움을 실현하려는 정신세계 • 긴장감을 이완시켜 심리적 해방감 추구 • 비애로부터 일탈을 꾀하는 낙천적 자세 • 내면의 고통을 표출하는 현실세계에 대한 반항을 역설적 표현	
외적표현	• 과장과 극단, 재미와 혐오, 유쾌와 불쾌 동시에 체험 • 신체형태의 변형·왜곡의 전위적 조형미 • 형태·색상·표현의 무제한적 시도	

출하거나 현실세계에 대한 반항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여 인간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금기나 관념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심리적 욕망에서 비롯되어 나타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TV 오락프로그램에 나타난 메이크업 중에서 해학미의 특성을 <표 4>에서 정리하였다.

## VI. 결론

TV 메이크업은 단순히 얼굴만 아름답게 꾸미는 차원을 넘어 방송미술 분야의 한 요소로서 방송인의 가치관 기호, 상황 등을 표현하는 도구로 문화의 중심에 서서 그 지평을 넓히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적 대중문화가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현대인의 유희(遊藝)적 성향이 사회문화적 트렌드에 반영되어 TV 오락프로그램에 나타난 메이크업을 한국적 미의식 중 해학미와 연관하여 이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첫째, 한국적 미의식은 해학미로 표현되었다. 이는 한과 흥의 대조적인 감정을 양립시켜 익살과 과격을 통해 인간의 다양한 감성으로부터 즐거움과 여유, 해학과 신비감을 추구한다.

둘째, TV 오락프로그램에 나타난 메이크업은 유희를 추구하는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메이크업에 있어서 성격표현에 중점을 둔 TV 메이크업의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신적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패러디 메이크업,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의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TV 오락프로그램에서 드라마, 코미디개그, 쇼예능의 경우, 장르별 극의 흐름과 대본의 캐릭터 연출을 위해 과장되어 연출되는데 일반적으로 패러디 메이크업,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추세는 최근 사회적 현상인 유희적 트렌드가 메이크업 분야에도 전반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한국적 미의식에 근거한 TV 오락프로그램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특성으로 해학미는 삶의 인고를 벗어날 수 있는 초연의 자세로 양립감정의 대립과 융화를 통한 희노애락의 실현

이라는 한국인의 낙천적 자세를 반영한다. 익살은 TV 오락프로그램을 통해 비애로부터 일탈을 피하는 왜곡·과장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과격은 추를 적극 수용하여 변형·왜곡을 통한 전위적 실험을 포용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이는 긴장감을 이완시켜 정신적 자유로움을 실현하려는 내적인 정신세계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세기 후반 탈 중심의 인식으로 추를 새로운 미로 받아들이면서 인간의 긴장감과 스트레스 등이 오락과 유희를 통해 긴장 해소와 카타르시스, 정신적인 만족감을 주는 경향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메이크업에도 성격표현에 중점을 둔 메이크업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최근의 트렌드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이 논문을 통해 한국 연예문화의 세계화를 중심으로 TV 메이크업의 미래 흐름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이는 한국적 미의식의 세계화에 대한 도전과 새로운 분야로서의 한국 문화 전파의 사명을 함께 제안하는 진지한 문제 제기임을 알려드리고 이 논문을 통해 미래의 방송 미술과 메이크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고유섭. (1997). *한국미의 산책*. 서울: 동서문화사.
- 권영필. (1985). *한국미술의 미적 본질*. 서울: 서울신문사.
- 김옥동. (1996).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서울: 지성과 문학사.
- 김지연. (2004). *현대 미술 중에 나타나는 해학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숙. (1988). *정치풍자 코미디의 현실과 가능성. 방송연구. 여름호, 224.*
- 김현정. (2006). *패션 쇼 윈도우 디스플레이에 나타난 유희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상수. (2011). *소비자와 패러디 광고*. 서울: 시간의 물레.
- 나현신. (2001). *복식의 역사적 절충주의 양식-19c*

- 와 20c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두산 세계 대백과 사전. (1996). 서울: 두산동아.
- 민중서림. (편). (1995). 옛센스 한영사전 (제4판). 서울: 민중서림.
- 박성봉. (1995). *대중예술의 이론들*. 서울: 동연.
- 안휘준. (1984). *한국미술의 미의식*. 서울: 정신문화연구원.
- 엄소희, 김문숙. (2000). 현대복식에 표현된 아방가르드의 유형별 특성연구. *복식문화연구*, 8(2), 315-333.
- 이유경. (2013). 한류 K-pop 패션에 나타난 고스(Goth) 이미지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5(2), 66-75.
- 정연자. (2009). 메이크업에 표현된 미적가치, *한국인체예술학회지*, 10(4), 227-242.
- 장미숙, 양희영. (2000). 1990년대 후반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8(3), 436-499.
- 최수경. (2011). 매스미디어가 여성의 의복과 메이크업 및 헤어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3(2), 35-46.
- 최준식. (2002). *한국인은 왜 틀을 거부하는가*. 서울: 조합공동체소나무.
- 하회탈. 자료검색일 2012. 9. 1, 자료출처 <http://www.daum.net>
- 파적도. 자료검색일 2012. 9. 1, 자료출처 <http://www.daum.net>
- 진서장군. 자료검색일 2012. 9. 1, 자료출처 <http://www.daum.net>
- 추녀밀 보살. 자료검색일 2012. 9. 1, 자료출처 <http://www.daum.net>
- 개그콘서트. 자료검색일 2012. 10. 1, 자료출처 <http://www.kbs.co.kr>
- H. Bergson. (1992). *정연복역. 웃음·희극성의 의미에 관한 시론*. 서울: 세계사.
- Huizinga. (1990). *Home Ludens*. Boston: Beacon Press.
- Media Survey.(2012, October 1). *Naver*. Retrieved September 30, 2013, from <http://kpfra.tistory.com/16>